

종교 간의 대화: 그 기여와 한계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천 권고안」

(2011)을 중심으로

김정우*

1. 들어가며

2025.10.27-31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서울 총회를 앞두고, WEA의 신학적 정체성과 WEA와의 교류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보수 교단의 한 주축을 이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일부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신학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¹⁾ 가장 선명한 비판으로서는 문병호의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WCC에 편승하여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 WEA가 그 신학과 실천에서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는 WEA가 로마 가톨릭과 WCC와 함께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천 권고안」(2011)에 공동으로 서명하였기 때문이다.³⁾ 이 문서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WEA의 관계, 그리고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및 타종교와의 관계 및 대화에 중요한 ‘조타 장치’(steering gear)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명예교수, 충신대학교/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구약학

- 1) 대표적으로 2016년 1월 22일, 호남지역 17개 노회장들이 연대 서명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광주. 전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들 수 있다. https://hjdc.net:8005/jesus/board_wlFV11/2275.
- 2) 문병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WCC에 편승하여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솔로몬, 2021).
- 3)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천 권고안」(*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06.28, 제네바). 원문은 <https://cbck.or.kr/Notice/13007544?gb=K1200>에 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 2011」로 표기함.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본 문서에 대한 선행 번역들을 원문과 함께 비평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고 본 문서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들을 검토한 후, 본 문서의 기여와 한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⁴⁾ 번역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원문은 편의상 이탤릭체로, 우리말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2. 번역

PREAMBLE

서언

§1. *Mission* belongs to the very being of the church. Proclaiming the word of *God* and witnessing to the world is *essential* for every Christia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o so according to *gospel principles*, with full respect and love for all human beings.

§1. 선교는⁵⁾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⁶⁾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⁷⁾ 이와 동시에 선교는 복음의 원리를⁸⁾ 따라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2. Aware of the tensions between people and communities of different religious convictions and the varied interpretations of Christian witness, the

4) 선행 번역들로서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CBCK)의 번역 (2011.07.12, 이후 CBCK로 표기함); (2) 손현정,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 전문 <크리스천투데이> (2011.6.28.) 등이 있다(이후 CT로 표기함).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47908>; (3) 정승원, “다종교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행을 위한 권고” 및 “로마가톨릭과 세계복음주의연맹의 국제 협의(2009-2016)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신학지남』 339 (2019), 54-59 등이 있다. 선행 번역들을 비평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CT의 초기번역 몇 곳에서 심각한 오역이 발생하여 WEA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5) ‘mission’은 대부분 ‘선교’로 번역한다(CBCK, CT).

6) 신명으로서 ‘하나님’은 가톨릭 전통에서 ‘하느님’으로 제시된다(CBCK).

7) ‘essential’은 ‘필수적인 일이다’(CBCK), ‘중요한 일이다’(CT)이지만 문맥에 따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 의역하였다.

8) ‘gospel principles’은 ‘복음의 방식’(CT)이라기보다 ‘복음의 원리’이다(CBCK).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PCI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nd, at the invitation of the WCC,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met during a period of 5 years to reflect and produce this document to serve as a set of recommendations for conduct on Christian witness around the world. This document does not intend to be *a theological statement* on mission but to address *practical issues* associated with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2. 오늘날 서로 다른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들 사이에 있는 긴장과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⁹⁾ 이 문제를 가지고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PCID)와 세계교회협의회(WCC),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대로 세계복음연맹(WEA)이 함께 지난 5년 동안 만남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지침용 권고안을 숙고하며 만들게 되었다. 이 문서는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명서는¹⁰⁾ 아니며, 다종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연관된 실천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해준다.

§3.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encourage churches, church councils and mission agencies to *reflect* on their current practices and to use the recommendations in this document to prepare, where appropriate, their own guidelines for their witness and mission among those of different religions and among those who do not profess any particular religion. It is hoped that Christians across the world will *study* this document in the light of their own practices in witnessing to their faith in Christ, both by word and deed.

§3. 이 문서의 목적은 교회들, 교회협의회들, 선교단체들이 그 동안의 관행들에 대해 반성하도록¹¹⁾ 격려하고, 이 문서에 있는 권고안을 사용하여 다른 종교인

9) 필자는 단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이 긴 단락을 기독교성을 위하여 네 개의 문장으로 나누었다.

10) ‘신학적 성명서’는 ‘신학적인 선언’(CT), ‘신학적 진술’(CBCK), ‘신학적 문건’(정승원)으로 제시된다.

11) 원문은 ‘관행들에 대해 반성하도록’이지, ‘선교 방식들을 회고하고’(CT)가 아니다.

들과 특정 종교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증거와 사역을 위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함에 있어서 각자의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이 문서를 연구하기 바란다.¹²⁾

A BASIS FOR CHRISTINAL WITNESS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위한 토대

§1. For Christians it is a privilege and joy to give an accounting for the hope that is within them and to do so with gentleness and respect (cf. 1 Peter 3:15).

§1.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¹³⁾ 그들의 특권이고 기쁨이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¹⁴⁾ 온유함과 정중함으로 해야 한다(벧전 3:15).

§2. Jesus Christ is the supreme witness (cf. John 18:37). Christian witness is always a sharing in his witness, which takes the form of proclamation of the kingdom, service to neighbour and the total gift of self even if that act of giving leads to the cross. Just as the Father sent the Son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o believers are sent in mission to witness in word and action to the love of the triune God.

§2.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증인이다¹⁵⁾(요 18:37). 그리스도인의 증인 됨은¹⁶⁾ 항상 그분의 증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12) ‘연구하기 바란다’(CBCK, 정승원)는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CT)가 아니다.

13) ‘to give an accounting for’는 ‘이야기한다는 것’(CBCK), ‘알려주는 것’(정승원),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CT)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14) ‘and to do so’ 구는 대부분 번역에서 생략되어 있으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로 번역하였다.

15) ‘witness’를 ‘간증’(CT)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16) ‘증인됨’(필자), ‘증거’(정승원), ‘증언’(CBCK)이지, ‘신앙 간증’(CT)이 아니다.

나라를 선포하고, 이웃을 돌보며, 비록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행태를 취한다. 성부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들을 보내심과 같이, 신자들도 말과 행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보냄 받았다.¹⁷⁾

§3. The exampl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and of the early church must be the *guides* for Christian mission. For two millennia Christians have sought to follow Christ's way by sharing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cf. Luke 4:16-20).

§3.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모범과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선교 모범¹⁸⁾ 되어야 한다. 지난 이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였다(눅 4:16-20).

§4. Christian witness in a *pluralistic world* includes engaging in dialogue with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and cultures (cf. Acts 17:22-28).

§4. 다원화된 세계에서¹⁹⁾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다른 종교들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행 17:22-28).

§5. In some contexts, living and proclaiming the gospel is difficult, hindered or even prohibited, yet Christians are commissioned by Christ to continue faithfully *in solidarity with one another* in their witness to him (cf. Matthew 28:19-20; Mark 16:14-18; Luke 24:44-48; John 20:21; Acts 1:8).

§5. 어떤 환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따라 살며 선포하는 것이 어렵거나, 방해받거나 심지어 금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17) '사명을 이루도록 보냄 받았다'(필자)와 '사명을 받아 파견됩니다'(CBCK)이며, '선교지에 보내진다'(CT)가 아니다.

18) '모범'(필자), '길잡이'(CBCK), '지침'(정승원)으로 제시될 수 있다.

19) '다원주의 세계'(CBCK, 정승원)는 가능하지만 '다른 문화권'을 포함하므로 '다종교 세계'(CT)는 아니다.

인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연대하여²⁰⁾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 하여야 한다(마 28:19-20; 막 16:14-18; 눅 24:44-48; 요 20:21; 행 1:8).

§6. If Christians engage in inappropriate methods of exercising mission by resorting to deception and coercive means, they *betray* the gospel and may cause suffering to others. Such departures *call for repentance* and remind us of our need for God's continuing grace (cf. Romans 3:23).

§6. 만약 그리스도인이 올바르지 않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선교 사역을 한다면, 그는 복음을 저버리고²¹⁾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회개하여야 하며²²⁾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롬 3:23).

§7. Christians affirm that while it is their responsibility to witness to Christ, *conversion* is ultimate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cf. John 16:7-9; Acts 10:44-47). They recognize that the Spirit *blows* where the Spirit wills *in ways over* which no human being has control (cf. John 3:8).

§7.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회심은²³⁾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임을 믿는다(요 16:7-9; 행 10:44-47). 우리는 성령께서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을 따라²⁴⁾ 바람이 부는 것처럼²⁵⁾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심을 믿는다(요 3:8).

20) '신뢰하며'(정승원), '연합하고'(CT) 보다 '연대하여'(필자, CBCK)이다.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는 '결속하여로 제시하며 WEA가 "RCC, WCC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결속하여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비약하여 해석한다(57).

21) '복음을 배신한 것이며'(정승원) 또는 '복음에 위배되는 일'(CT)보다 '복음을 저버리고'(필자, CBCK)가 더 적절하다.

22) '회개를 불러 오며'(정승원)는 어색하다.

23) '회심'(정승원, CBCK)이지, '개종'(CT)은 아니다.

24) 'in ways over'는 '인간은 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정승원), '어떠한 인간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CBCK), '성령이 인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방법으로'(손현정)보다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을 따라'가 더 어울린다.

25) 'blows'는 바람의 이미지로서 '불고 싶은 대로'(CBCK), '바람이 부는 것처럼'(필자)에서 번역에 반영되며, CT와 정승원에서는 번역이 생략된다.

PRINCIPLES

원리

Christians are called to adhere to the following principles as they seek to fulfil *Christ's commission* in an appropriate manner, particularly within interreligious contexts.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²⁶⁾ 특히 서로 다른 종교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1. **Acting in God's love.** Christians believe that God is the source of all love and, accordingly, in their witness they are called to live lives of love and to love their neighbour as themselves (cf. Matthew 22:34-40; John 14:15).

§1.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원천임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의 증거에 있어서 사랑의 삶을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마 22:34-40; 요 14:15).

§2. **Imitating Jesus Christ.** In all aspects of life, and especially in their witness, Christians are called to follow the example and teachings of Jesus Christ, sharing his love, giving glory and honour to God the Father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f. John 20:21-23).

§2.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모습에서 그리고 특히 그들의 증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요 20:21-23).

26) 'Christ's commission'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필자, 정승원)이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CBCK)은 적절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명'(CT)은 부적절하다.

§3. **Christian virtues.** Christians are called to conduct themselves with *integrity*, *charity*, compassion and humility, and to overcome all arrogance, condescension and *disparagement* (cf. Galatians 5:22).

§3. **그리스도인의 덕목.**²⁷⁾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²⁸⁾ 구제,²⁹⁾ 자비,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며, 모든 교만, 우월감, 비방을³⁰⁾ 극복하도록 부름 받았다(갈 5:22).

§4. **Acts of service and justice.** Christians are called to act justly and to love tenderly (cf. Micah 6:8). They are further called to serve others and in so doing to recognize Christ in the least of their sisters and brothers (cf. Matthew 25:45). Acts of service, such as providing education, health care, relief services and acts of justice and *advocacy* are an integral part of witnessing to the gospel. The *exploitation* of situations of poverty and need has no place in Christian outreach. Christians should denounce and refrain from offering all forms of allurements, including *financial incentives* and rewards, in their acts of service.

§4. **섬김과 정의의 실천.**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미 6:8).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고, 섬김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형제자매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름 받았다(마 25:45). 섬김의 사역으로서 교육, 보건, 구제, 정의 실천과 옹호 활동은³¹⁾ 복음 증거의 필수적인 영역이다. 기독교의 섬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³²⁾ 안 된다. 우리는 금전적 보답과³³⁾ 보상 같은 온갖 종류의 유혹을 거부하고 삼가야 한다.

27) ‘virtues’는 ‘덕목’(필자), ‘미덕들’(정승원), ‘덕행’(CBCK)이지만, ‘도덕성’(CT)은 아니다.

28) ‘integrity’는 ‘정직함’(필자)이나 ‘정직’(CBCK)이지만, ‘고상함’(정승원)이나 ‘성실’(CT)은 아니다.

29) ‘charity’는 바로 뒤따르는 ‘compassion’(자비) 때문에, ‘구제’로 제시하였다.

30) ‘disparagement’는 ‘차별’(CT)보다 ‘비방’(CBCK)이나 ‘헐뜯음’(정승원)이다.

31) ‘advocacy’는 ‘옹호 활동’(필자) 또는 ‘변호를 위한 활동’(CBCK)이며, ‘시민단체 활동’(CT)은 지나친 의역이다.

32) ‘exploitation’은 ‘이용해서 안 된다’(CBCK)가 적절하며, ‘노동 착취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CT)는 과격한 번역이다.

§5. **Discernment in ministries of healing.** As an *integral part* of their witness to the gospel, Christians exercise ministries of healing. They are called to exercise discernment as they carry out these ministries, fully respecting human dignity and ensuring that the *vulnerability* of people and their need for healing are *not exploited*.

§5. **치유 사역에서 분별력.** 복음 증거의 핵심 영역으로서³⁴⁾ 그리스도인은 치유 사역에 종사한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존중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취약함과³⁵⁾ 치료의 필요성이 부당하게 오용되지 않도록³⁶⁾ 확실히 해야 한다.

§6. **Rejection of violence.** Christians are called to reject all forms of violence, even psychological or social, including the abuse of power in their witness. They also reject violence, unjust discrimination or repression by any religious or secular authority, including the *violation or destruction* of places of worship, sacred symbols or *texts*.

§6. **폭력의 거부.** 그리스도인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도록 부름 받았다. 심지어 심리적 폭력, 사회적 폭력, 그리고 권력 남용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예배 장소들, 종교적 상징물들, 또는 경전들을³⁷⁾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을³⁸⁾ 비롯하여, 그 어떤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불의하게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폭력을 거부하여야 한다.

33) '재정적 장려'(정승원)는 어색하며 '금전적 보답'(필자)이나 '금전적 보상'(CBCK)이 적절하다.

34) '핵심 영역'이며, '중요한 부분'(CBCK, CT)이지 '일부분'(정승원)이 아니다.

35) 'vulnerability'는 현재의 문맥에서 '약점'(정승원), '연약함'(CT), '나약함'(CBCK)보다는 '취약함'이다.

36) '무시되지 않는 가운데'(정승원) 혹은 '남용되지 않도록'(CT)보다 '이용당하지 않도록'(CBCK)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필자)이다.

37) 현재의 문맥에서 'texts'는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가리킨다.

38) '종교적 상징물들, 또는 경전들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필자)은 '신성한 상징, 경전들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CBCK)로 제시된다. '성물이나 경전의 위반'이나 파괴(정승원, 필자의 강조)는 다소 어색하다.

§7.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Religious freedom including the right to *publicly profess*, practice, propagate and *change one's religion* flows from *the very dignity* of the human person which is grounded in the creation of all human beings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cf. Genesis 1:26). Thus, all human beings have *eq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here any religion is instrumentalized for political ends, or where religious persecution occurs, Christians are called to engage in *a prophetic witness* denouncing such actions.

§7. **종교와 신앙의 자유.** 공적인 신앙고백,³⁹⁾ 실천, 전도, 그리고 개종할 권리⁴⁰⁾ 비롯한 종교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바로 그 자체에⁴¹⁾ 근거한다(창 1:26). 따라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⁴²⁾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종교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구화된 곳이나 종교적 박해가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책망하는 예언자적 증거⁴³⁾ 하도록 부름 받았다.

§8. **Mutual respect and solidarity.** Christians are called to commit themselves to work with all people in mutual respect, promoting together justice, peace and the *common good*. Interreligious cooperation is an essential dimension of such commitment.

§8. **상호존중과 연대.**⁴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존중

39) ‘공적인 신앙고백’(필자)은 ‘자신의 종교를 공공연히 고백하고’(CBCK), ‘공개적으로 고백할 권리’(정승원)이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포하고’(CT)는 아니다.

40) ‘개종할 권리’(CBCK)는 맞지만, ‘회심’(정승원)이나 ‘전도하는 권리’(CT)는 아니다.

41) ‘존엄성 바로 그 자체’에서 ‘그 자체’는 대부분 번역에서 생략되었다. 그러나 신정훈은 ‘인간의 존엄 자체’로 제시한다. 신정훈, “행동 권고 ‘다종교 사회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가톨릭신학』 20 (2012), 3.

42) ‘동등한 권리와 책임’(필자, CB)이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정승원)는 맞지만, ‘동일한 권리와 책임’(CT, 필자의 강조)은 아니다.

43)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정승원)보다는 ‘예언적 증거’(CT), ‘예언자적 증언’(CBCK)이 더 신학적이다.

44) ‘연대’(CBCK)가 ‘협력’(CT)보다 더 적절하며, ‘일치’(정승원)는 아니다.

하고 협력하여 정의와 평화와 공동선⁴⁵⁾ 증진하는데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 따라서 종교 상호간의 협력은 이와 같은 헌신적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이다.

§9. **Respect for all people.** Christians recognize that the gospel both challenges and enriches cultures. Even when the gospel challenges certain aspects of cultures, Christians are called to respect all people. Christians are also called to discern elements in *their own cultures* that are challenged by the gospel.

§9.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문화에 대해 도전할 뿐 아니라 문화를 부요하게 함을 알고 있다. 복음이 문화의 특정 양상들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⁴⁶⁾ 안에서 복음이 도전하는 요소들을 분별해야 한다.

§10. **Renouncing false witness.** Christians are to speak sincerely and respectfully; they are to listen in order *to learn about and understand others'* beliefs and practices, and are encouraged to acknowledge and *appreciate* what is true and good in them. Any comment or critical approach should be made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making sure not to bear *false witness* concerning other religions.

§10. **거짓 증거의 거부.**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실천에 대하여 알아보고⁴⁷⁾ 그리고 이해하기

45) '공동선'(CBCK, CT, 신정훈)이 '공익'(정승원)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이다.

46) '그리스도교 문화'(CBCK)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문화'(필자), '자신의 문화'(CT, 정승원)이다.

47) '*to learn about and understand others'* beliefs'는 '다른 이들의 믿음과 실천을 배우고'(CBCK),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생활을 배우고'(정승원),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 양식을 배우고'(CT)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실천에 대하여 알아보고'(필자)가 더 적절하다.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역시 본 항목에 대하여 "또한 다른 이들의 믿음과 실천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안에 있는 참되고 좋은 것을 인정하고(acknowledge)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그들의 강조)로 번역한다(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52).

위하여 귀 기울여야 하며,⁴⁸⁾ 그들 안에 있는 참되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도록⁴⁹⁾ 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평가나 비판도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해야 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 왜곡된 증거를⁵⁰⁾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Ensuring personal discernment.** Christians are to acknowledge that changing one's religion is a *decisive step* that must be accompanied by sufficient time for *adequate reflection* and preparation, through a process *ensuring full personal freedom*.

§11. **개인적 분별력의 확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단계를⁵¹⁾ 밟는 것이므로 그의 개인적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가운데,⁵²⁾ 심사숙고하면서⁵³⁾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12. **Building interreligious relationships.** Christians should continue to build relationships of respect and trust with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so as to facilitate deeper mutual understand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common good*.

§12. **종교 상호간의 신뢰관계 쌓기.**⁵⁴⁾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를 가진

48) '그리고 이해하기 위하여 귀 기울여야 하며'(필자)에서 접속사 '그리고'는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해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번역은 접속사를 생략한다. '귀 기울이다'와 '경청하다'(정승원)는 경청의 질에 대한 언어이며 '많이 들어야 한다'(CT)처럼 양에 대한 것이 아니다.

49)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한다'(필자)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CBCK),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정승원),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CT)로 제시된다.

50) '왜곡된 증거'(필자)는 '거짓 증언'(CBCK), '거짓 증거'(CT, 정승원)로 제시된다.

51) '결정적인 단계'(필자, 정승원)는 '중대한 일'(CT)보다 더 직접적이다. 참조. '결단의 행보'(CBCK).

52) '개인의 자유를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CT)보다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CBCK, 정승원)이다.

53) '심사숙고'(필자)와 '적절한 성찰'(CBCK)은 적절하지만, '적합한 반영'(정승원), '올바른 회고'(CT)는 아니다.

54) '관계 수립'(정승원), '관계 구축'(CBCK), '관계 증진'(CT)은 현재의 문맥에 따라 '신뢰관계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로써 공동선을⁵⁵⁾ 위하여 상호간에 더 깊은 이해, 화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RECOMMENDATIONS

권고 사항

The Third Consultation *organized*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PCID of the Holy See *in collaboration with* the WEA and with participation from the largest Christian families of faith (Catholic, Orthodox, Protestant, Evangelical and Pentecostal), having acted *in a spirit of ecumenical cooperation* to prepare this document for consideration by churches, national and regional confessional bodies and mission organizations, and especially those working in interreligious contexts, recommends that these bodies: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주최하고 세계복음연맹이 협력하면서,⁵⁶⁾ 주요 기독교 믿음의 가족들(가톨릭교회, 정교회, 개신교회, 복음주의교회, 오순절교회)이 참여한 제3차협의회에서는 초교파적 협력의 정신으로⁵⁷⁾ 이 문서를 준비하는데 노력하였다. 우리는 교회, 국가 및 권역 교단,⁵⁸⁾ 선교기구, 그리고 특히 다종교적 상황에서 사역하는 분들을⁵⁹⁾ 위하

쌓기'로 의역하였다.

55) '공동선'(필자, CBCK)은 '공익'(정승원)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다. CT에서는 생략됨.

56) '주최하고 ... 협력하면서'(필자, CBCK)에서 정승원은 '주최하다'를 생략하고 'WEA의 협조'만 언급한다. CT는 "WEA, PCID의 도움으로, 그리고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가톨릭, 정교, 기독교, 복음주의와 성령주의)의 참여로 WCC가 주최한"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순 전체를 왜곡하고, PCID를 WEA와 직접 연결하면서 주최에서 제외하며, 주최자로 WCC만 제시하고 있다.

57) '초교파적 협력의 정신으로'(필자, CBCK)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따라'(CT, 정승원), '에큐메니칼 협력의 정신으로' 제시된다(문병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178).

58) 'regional confessional bodies'는 '지역의 교단들'(CBCK), '지역 차원의 고백적 기관'(정승원), '지역의 신앙 고백적 공동체'(CT)보다 '권역 교단'이 더 적절하다.

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Study** the issues set out in this document and where *appropriate formulate guidelines* for conduct regarding Christian witness applicable to their particular contexts. Where possible this should be done *ecumenically*, and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other religions.

§1. **연구합시다.** 이 문서에 제시된 쟁점들을 연구하고,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관한 적절한 행동 지침⁵⁹⁾ 만들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은 초교파적으로⁶¹⁾ 이루어져야 하며, 타종교들의 대표들과 논의하며⁶²⁾ 만들기 바랍니다.

§2. **Build** relationships of respect and trust with people of all religions, in particular *at institutional levels* between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communities, engaging in on-going interreligious dialogue as *part of their Christian commitment*. In certain contexts, where years of tension and conflict have created deep suspicions and breaches of trust between and among communities, interreligious dialogue can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resolving conflicts, restoring justice, *healing of memories*,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59) ‘특히 다종교적 상황에서 사역하는 분들’(필자), ‘특별히 종교간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CBCK)은 ‘특별히 종교 간 관계에서 사역하는 이들’(CT)과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정승원)로 심하게 오역되었다.

60) ‘적절한 행동 지침’(필자)은 ‘정식 행동 지침’(CT)으로 오역되고, 정승원은 번역에서 빠뜨린다.

61) ‘초교파적으로’(필자, CBCK, CT)는 ‘에큐메니컬하게’(정승원)로 번역되어, 마치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인상을 준다.

62) ‘논의하며’(필자)가 ‘자문도 얻어’(CB), ‘자문을 통해야 하며’(CT), ‘자문 가운데’(정승원)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는 본 항에서 “기독교 증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합적으로 그리고 다른 종교대표들과의 자문 가운데 행해야 한다”로 번역한다(57, 그들의 강조). 나아가 “복음증거와 선교사역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혼합종교를 포용하는 WCC와 함께 결속하여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묻는다(58, 나의 강조).

§2. **쌓으십시오** 우리는 모든 (다른) 종교인들과 더불어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쌓기를⁶³⁾ 권고합니다. 특히 교회와 다른 종교 공동체들 사이에는 기구적 차원에서⁶⁴⁾ 기독교 신앙 실천의 한 부분으로서⁶⁵⁾ 지속적인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긴장과 갈등으로 깊은 의심이 만들어지고, (종교) 공동체들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상황에서 종교 상호간의 대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회복하며 기억을 치유하고⁶⁶⁾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Encourage** Christians to strengthen their own religious identity and faith while deepening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different religions, and to do so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perspectives of the adherents of those religions. Christians should avoid *misrepresenting*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3.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고⁶⁷⁾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종교인의 관점을 고려하게 될 때,⁶⁸⁾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인의 신앙과 실천을 잘못 전하지⁶⁹⁾ 않도록 해야 합니다.

63) ‘관계를 쌓다’(필자, CBCK)는 ‘관계를 수립하라’(정승원), ‘관계를 정립하다’(CT)보다 더 중립적이다.

64) ‘기구적 차원’(필자)은 ‘제도적 차원’(CBCK), ‘기관 차원’(정승원), ‘단체적 차원’(CT)보다 더 적절하다. ‘기구’는 ‘제도’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며, 필요할 경우에 만드는 것이다.

65) ‘as part of Christian commitment’는 ‘그리스도인 사명의 일부’(CBCK)나 ‘기독교 신념의 일부분’(정승원)보다 ‘기독교 신앙 실천의 한 부분’(필자)이 더 적절하다.

66) ‘기억을 치유하고’(필자)와 ‘기억의 치유’(CBCK)는 정승원에서 생략되며, ‘상처를 치유한 기억’(CT)으로 오역된다.

67) ‘이해와 지식을 두텁게 하고’(CT)보다는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고’(필자)와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CBCK)이다.

68)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종교인의 관점을 고려하게 될 때’(필자)는 ‘다른 종교인들의 관점도 고려하면서’(CBCK), ‘그 종교들의 신자들의 관점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정승원)가 가능하지만,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이라’(CT)는 심각한 오역이다. ‘참작하다’ 또는 ‘고려하다’도 가능하다(박용규, 241; 이국진, 87).

69) ‘잘못 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필자)는 ‘그릇된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CBCK), ‘잘못

§4. *Cooperate* with other religious communities engaging in interreligious advocacy towards justice and the common good and, wherever possible, standing together *in solidarity* with people who are in situations of conflict.

§4. **협력하십시오** 다른 종교 공동체들과 더불어 정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상호간의 공동 활동을 도모하기⁷⁰⁾ 권고합니다. 가능하다면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길⁷¹⁾ 바랍니다.

§5. *Call* on their governments to ensure that freedom of religion is properly and comprehensively respected, *recognizing* that in many countries religious institutions and persons are inhibited from exercising their mission.

§5. **요청하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종교 단체들과 개인의 선교 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⁷²⁾ 종교의 자유가 합당하고 온전하게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정부에 요청하기 바랍니다.

§6. *Pray* for their neighbours and their well-being, recognizing that prayer is *integral* to who we are and *what we do*, as well as to *Christ's mission*.

§6.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사역의 핵심이자⁷³⁾ 그리스도의 미션의⁷⁴⁾ 핵심임을 깨닫고 이웃들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대변해서는 아니 된다(정승원)로 번역될 수 있다. CT에서는 이 번역이 생략되었다.

70) ‘정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상호간의 공동 활동을 도모하다’(필자)와 ‘정의를 옹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종교간 활동에 협력하다’(CBCK)는 ‘공의와 공익을 향한 타종교간의 변론함에 있어서 타종교들과 협력하라’(정승원, 필자 강조)에서 어색하게 번역되었다. ‘다른 종교 단체들과 함께 정의와 공익을 위한 범종교적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라’(CT, 필자 강조)는 지나친 의역이다.

71) ‘연대하다’(필자, CBCK)는 ‘연합을 이루도록’(정승원)이나, ‘함께 연합하다’(CT)가 아니다.

72) ‘인식하다’는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억제된 것을) 인정하다”(CT)가 아니다.

73)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정승원)과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CT)보다는 ‘우리 사역의 핵심’(필자) 또는 ‘활동의 핵심’(CBCK)이다.

74) ‘Christ’s mission’은 ‘그리스도의 미션’(필자)이거나 ‘그리스도 선교’(CBCK), ‘그리스도의 선교’(정승원)이지, ‘기독교인들의 선교’(CT)가 아니다.

Appendix: Background of the document

부록: 이 문서의 배경⁷⁵⁾

§1. In today's world there is increasing collaboration among Christians and between Christians and followers of different religions. The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PCID) of the Holy See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rogramme on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WCC-IRDC) have a history of such collaboration. Examples of themes on which the PCID/IRDC have collaborated in the past are: Interreligious Marriage (1994-1997), Interreligious Prayer (1997-1998) and African Religiosity (2000-2004). This document is a result of their work together.

§1.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타 종교인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의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공동작업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 두 협의체가 과거에 협력하여 다룬 주제들로서는 “종교 간의 결혼”(1994-1997), “종교 간의 기도”(1997-1998), 그리고 “아프리카의 종교성” 이 있다(2000-2004). 이 문서는 그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 중 하나이다.

§2. There are increasing interreligious tensions in the world today, including violence and the loss of human life. Politics, economics and other factors play a role in these tensions. Christians too are sometimes involved in these conflicts, whe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either as those who are persecuted or as those participating in violence. In response to this the PCID and IRDC decided to address the issues involved in a joint process towards producing share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on Christian witness. The WCC-IRDC invite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and they have gladly done so.

75) <부록 1>은 정승원에서 번역이 생략되었다.

§2. 오늘날 세계에는 폭력과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종교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 경제 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러한 긴장을 만들고 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탄압을 받거나 혹은 폭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종교간대화평의회와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위한 행동지침과 권고안을 함께 마련하는 공동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프로그램은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였고, 그들은 기꺼이 함께 하였다.

§3. Initially two consultations were held: the first, in Lariano, Italy, from 12 to 18 May 2006, was entitled “Assessing the Reality” where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religions shared their views and experiences on the question of conversion. A statement from the consultation reads in part: “We affirm that, while everyone has a right to invite others to an understanding of their faith, it should not be exercised by violating others’ rights and religious sensibilities. Freedom of religion enjoins upon all of us the *equally non-negotiable responsibility to respect faiths other than our own*, and never to denigrate, vilify or misrepresent them for the purpose of affirming superiority of our faith.”

§3. 처음에는 두 번의 협의회가 있었다. 첫 모임은 이탈리아 라리아노에서 2006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현실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다른 종교의 대표들이 개종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나누었다. 당시에 만든 성명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이해하도록 초대할 권리가 있으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종교적 감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존중하고,⁷⁶⁾ 자신의 믿음이 우월함을 주장할 목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타협할 수 없는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⁷⁷⁾ 요구한다.”

76) ‘자신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존중하고’(필자는 ‘우리 자신의 믿음보다 다른 믿음을 존중하여야 하고’(CBCK), ‘자신의 종교 의의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CT)로 잘못 번역되었다.

§4. The second, an inter-Christian consultation, was held in Toulouse, France, from 8 to 12 August 2007, to reflect on these same issues. Questions on Family and Community, Respect for Others, Economy, Marketing and Competition, and Violence and Politics were thoroughly discussed. The pastoral and missionary issues around these topics became the background for theological reflection and for the principles developed in this document. Each issue is important in its own right and deserves more attention that can be given in these recommendations.

§4. 두 번째 기독교 상호간의 협의회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2007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동일한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모였다. 곧, 가정과 공동체, 타인에 대한 존중, 경제, 마케팅과 경쟁, 폭력과 정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 주제들에 대한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쟁점들은 신학적 성찰의 바탕이 되고, 또 이 문서에서 다듬어진 원리들의 배경이 되었다. 각 쟁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며, 이 문서의 권면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다루었다.

§5. The participants of the third (inter-Christian) consultation met in Bangkok, Thailand, from 25 to 28 January 2011 and finalized this document.

§5. 제3차 (기독교상호) 협의회는 태국 방콕에서 2011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고, 이 문서에서 완성되었다.⁷⁸⁾

2. 본 문서에 대한 평가들

한국장로교회는 1959년 WCC 가입 등의 문제로 합동과 통합의 교단 분열을 경험하였고,⁷⁹⁾ 그 동안 상호간에 ‘기억의 치유’ 과정을 서로 거치지 못하였

77) ‘모두에게 동등하게 요구한다’(필자는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하고 있다’(CBCK)로 제시되나, CT에서는 생략된다.

78) 신정훈에 따르면, 본 문서는 2011.06.28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에서 발표되었다. 신정훈, “행동 권고,” 2.

기 때문에 합동 교단은 WCC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WEA가 가톨릭교회와 WCC와 함께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문서에 서명하고 공동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WEA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논란은 “WEA와의 관계 단절 문제”를 총회에서 논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합동교단의 여러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에 대해 강한 반대부터 온건한 비판까지 다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2.1.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에 대한 주입식 읽기(Eisegesis)⁸⁰⁾

본 문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부정으로서 문병호는 본 문서를 ‘로마 가톨릭-WCC-WEA의 에큐메니칼 협업 선언’으로 본다.⁸¹⁾ 그는 본 문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고 번역하면서, 먼저 ‘서언’은 그 자체가 “WEA가 ‘복음화’를 명분으로 삼아 실상 WCC와 로마 가톨릭 제2차 바티칸회의 유(類)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길에 서서 ‘탈복음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평가한다(p. 176). 나아가 ‘원칙’ §12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동선’은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가치, 범종교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한다(p. 178). 그리고 권고사항 §3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종교인의 관점을 고려하게 될 때”를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두텁게 하고

79) 로봉린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1959년 장로교의 분열 원인의 이유를 ‘복잡한 것’으로 보며, ‘내적 원인’으로서는 “비신학적인 원인, 신학적인 원인, 교권 투쟁,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원인으로” 그리고 ‘외적 원인’으로서는 ‘선교 자금 문제와 에큐메니칼 논쟁’으로 제시하였다(김일우 역, 3). 최근의 글로서는 정병준,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재조명: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장로교신학회』 8 (2011.03), 183-199.

80) ‘주입식 읽기’(eisegesis, 註入)는 ‘주출식 읽기’(exegesis, 註釋, 註解)와 대비되는 용어로 필자가 만들어 보았다.

81) 문병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175.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로 비약하여 번역하면서,⁸²⁾ 이 사항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증언’은 될지 모르나 ‘기독교적 증언’은 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p. 178). 또한 권고사항 §4의 “다른 종교 공동체들과 더불어 정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상호간의 공동 활동을 도모하기를 권고합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길 바랍니다”에 대하여, 그는 “다른 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서로 간에 변호하고 결속을 다질 것”으로 해석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178). 끝으로 그는 “본 문건은 신령한 계시와 세상의 윤리를, 그리고 기독교와 세상 종교들을 혼합시키고, 포용시키며 다원화시키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기독교 신학에서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보여 주며, 그 한 축이 되는 WEA가 참된 ‘복음화’의 길에서 얼마나 비껴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고 못 박는다(p. 179). 전체적으로 볼 때, 문병호는 WEA 뿐 아니라 본 문서에 대해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주입식 독서’(eisegesis)를 하고 있다.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는 그들이 속한 교단이 ‘WEA와의 교류단절’을 하는 것은 ‘분리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므로 반대하고, WEA의 신앙고백, 성경관, 정체성, 역사, 사역에 대해서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그 의도와 동기는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할 만한 내용’과 ‘해소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⁸³⁾

첫째로, ‘신학적 정체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 서언 §2항의 “이 문서는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명서는 아니며, 다종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연관된 실천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신학의 내용과 실천의 영역’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성향’을 가진다고 비판한다(p. 50, 54, 62).

82) 문병호, “문병호(총신대 교수) 전문위원의 보고” 『제102회 총회 보고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7), 975. 이국진, 87에서 인용.

83)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WEA와의 교류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의 길』(가리온, 2021), 56.

둘째로, 본 문서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원리 §10항을 “타종교의 신앙을 배우고, 그들의 진리를 인정할 것이며… 그들 안에 있는 참되고 좋은 것을 인정하고(acknowledge)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로 번역하면서, 이 항목을 ‘매우 위험스러운 원리’로서 ‘신학적 정체성을 타협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평가한다(p. 52).

셋째로, ‘연합의 범위’에 있어서 본 문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서언, 토대 §5)은 ‘가톨릭과 WCC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며(p. 57), 권고사항 §1의 “다른 종교대표들과의 자문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그들의 번역) 역시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혼합종교를 포용하는 WCC와 결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58). 즉, 그들에 따르면 본 문서는 “복음주의 연합의 범위에 있어서 역사적 복음주의의 범주를 넘어서서, 성경적 복음에서 떠난 자유주의나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는 단체들에게까지 나아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p. 63).

정승원은 WEA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복음주의 전통 안에 두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은 “최근 WEA 행보에 문제가 된 대표적 사안이다”라는 서론으로 시작한다(p. 54). 그는 이 문서에 대한 사역을 마친 후(pp. 55-59), 먼저 긍정적으로 “이 문서 안에 가톨릭의 교리로서 ‘마리아 무오설, 교황무오설, 연옥설’이 없으며, ‘WCC의 자유주의적 구원관이나 기독교 같은 교리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한다(p. 59). 그렇지만, 그 역시 원리 §10항의 ‘거짓 증거의 거부’를 ‘매우 위험스러운 원리’(p. 60)로 평가한다. 또한 권고사항 §3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인의 신앙과 실천을 잘못 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의 신자들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를 잘못 대변해서는 아니 된다”고 번역하면서, 이 항목은 ‘기독교와 타종교의 ‘반립’(antithesis)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한다(p. 61).⁸⁴⁾

84) 정승원은 이어서 “International Consultation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2009-2016]”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정승원, 62, 각주 6.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istianity/sub-index/index_evangelicals.htm).

요약하자면,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정승원은 WEA의 복음주의적 정체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본 문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판을 한다.⁸⁵⁾

2.2. 본 문서에 대한 주석적 읽기(Exegesis)

본 문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번역이 가톨릭에서 「다종교 세계에서 하는 그리스도인 증언: 행동 권고」(CBCK, 2011.7.12.)라는 제목으로 이미 나왔고, 그 이듬해에 신정훈이 본 문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을 학술 논문으로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⁸⁶⁾ 선행하는 비판과 토론들이 기존 번역과 연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랍고 이해하기 어렵다.

신정훈은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이 오늘날 ‘종교 간의 갈등’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퍼지고 있으며, 특히 이 갈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범세계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졌다는 배경으로 그의 글을 시작한다. 그의 중심 관심은 본 문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에 있다. 즉,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로서 (1)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인간 존엄성’, 1965.12.7), (2)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Nostra aetate, ‘우리 시대’, 1965.10.28)과 공의회 이후의 문서로서 (3) “대화와 선교”(Dialogue and Mission, 1984.6.10),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1990.12.7)

85) 위의 학자들과 달리 이국진은 합동교단의 “WEA 연구위원회 공청회”에서 그 동안 교단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비판들과 평가들을 정리하면서, 본 문서에는 “WEA가 WCC처럼 ‘세계종교통합’ 또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표현은 단 한 문장도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방을 받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오역하거나 부정확하게’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국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총회105회기 WEA 연구위원회 공청회), 76-107 (83).

86) 신정훈, “행동 권고 “다종교 사회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가톨릭신학」 20 (2012), 1-32.

을 열거하며, 이 전통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을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본 문서의 의의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그는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언”(Dignitatis humanae)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말해준다(p. 7). (1) “인간은 인격적인 존엄성 때문에 누구나 양심에 따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 (2) “종교의 자유는 인권으로서 인격의 존엄성에 근거하기에 국가는 개인의 종교적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지니지 않는다”. (3) “모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진리는 오직 진리 스스로의 힘으로 밝혀지기에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특정 종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즉, 이 문서는 가톨릭교회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가르친다”. 신정훈은 이 선언이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에서 토대 §6과 원리 §6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본다(p.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원주의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장점만을 지니지 않고 사회의 갈등 요인을 불가피하게 내포한다”는 점을 잘 지적한다(p.10).

둘째로,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Nostra aetate)”에 대해 신정훈은 이 문서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과 “교회 내의 반유대이즘적 잔재의 청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는 타종교로서 먼저 유대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유대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므로” 이 문서는 “유대인들과 정신적 공동 유산을 바탕으로 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권고한다”(p. 9). 이슬람에 관하여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발견되는 적지 않은 신앙의 공통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과거의 적대 관계를 상기시키며 정의와 도덕과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평가한다(p. 14). 타종교로서 힌두교, 불교 등은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으며,” 타종교 안에도 ‘말씀의 씨’가 있다는 전통적 견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

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내면에 간직된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정화되어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이와 같은 입장이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의 원리 §8, 9, 10에 반영된 것으로 제시한다(p. 10-11).

셋째로, 신정훈은「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의 토대 §4, 7에 제시된 ‘선교와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으로서 바티칸 공의회 이후 문서들에서, “교회는 점진적으로 종교 간 대화를 교회의 본질적 행위 안에 이해하며 이를 선교와는 구분되지만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행위로 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파악한다(p. 19). 그 문서들은 ‘선교와 대화’에서 “대화 목적과 참가자에 따라 대화를 분류함으로써 종교 간 대화의 성격을 뚜렷이 하며” 구체적으로 “생활의 대화(평신도), 행위의 대화(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 전문가들의 대화(신학자), 종교 경험에 관한 대화”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한다(ibid.). 나아가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필요성으로서, 그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교회는 “타종교가 지닌 진리의 광채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해의 확대를 위해 교회는 종교 간 대화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3)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확신을 지녀야 하지만 또한 하느님께서 다른 종교 전통에 속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로 요약한다(pp. 21-22). 결론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증언 2011」이 ‘가톨릭교회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p. 23).

끝으로, “본 문서의 의의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적용한다. (1) “종교 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쌓아 갈 필요가 있다”(p. 24) (2) “한국 사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된다(ibid). (3)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이웃 종교를 무시하며 일방적인 복음 선포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교정되어야 한다”(p. 25).

3. 종합적 평가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WEA, 로마 가톨릭, WCC처럼 역사적으로 신학적, 종교적 전통이 고도로 다른 세 기구가 책임 있는 학자들을 통하여 오년에 걸쳐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천 권고안」을 정교한 언어로 신학적·실천적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을 볼 때, 이 문서는 세 기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공통된 입장으로 다듬어진 최소 공배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이 문서의 내용에는 전통적인 가톨릭과 WCC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복음주의의 입장이 더 뚜렷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본 문서에 대한 몇 가지 비판과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 보았다.

3.1.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혼합주의’라는 비판의 부당성

첫째로,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중심 특징으로 비유하자면 (1) 모두 종교가 하나(하나님)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다른 등산로이며, (2)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뻗어 나온 손가락’이고(김경재), (3) 모든 종교는 천체가 태양(하나님)을 중심으로 각각의 ‘궤도’를 도는 것(Hick)이다. 따라서 역사적 기독교의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의 교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종교 사상이다.⁸⁷⁾ 그러나 WEA 179년 역사에서 만들어진 그 어느 문서에도 이런 입장은 없다.

둘째로, 본 문서의 서언 §2항이 ‘신학의 내용과 실천의 영역’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성향을 가진다고 비판하지만, 여기서 “신학적 성명서가 아니다”는 “신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서는 선교신학의 쟁점들에 대하여

87) 김정우, “종교다원주의와 1계명,” 「목회와 신학」 (1999.02), 58-68.

‘신학적 성찰의 바탕’을 제공한다(부록 §4). 이 문서는 서언에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밝힌다 (§1).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위한 토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구원과 예수의 부활(§1, 벤전 3:15-21), 삼위일체와 십자가 사건(§2), 하나님 나라(§2),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3), 성령의 회심 사역(§7)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명령(서언), 하나님 사랑의 실천(§1), 그리스도인의 성화(§2-6),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의 자유(§7), 그리고 문화 명령(§9), 일반 은총(§10)⁸⁸⁾ 등이 있다.

셋째로, 본 문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은 대부분 오역이나 지나친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연대’(solidarity, 원칙 §8)가 ‘일치’(정승원)로 번역되었다.

(2)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실천에 대하여 알아보고”(원칙 §10)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생활을 배우고”(정승원),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 양식을 배우고”(CT)로 번역되었다.

(3) ‘초교과적 협력의 정신으로’(권고 서문)가 ‘에큐메니칼 정신을 따라’(CT, 정승원, 문병호)로 번역되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 이미 WCC의 중심 사역을 가리키므로 중립적 느낌을 배제한다. 이어서 ‘다종교적 상황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특별히 종교 간 관계에서 사역하는 이들’(CT),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정승원)로 번역되었다.

(4) ‘타종교들의 대표들과 논의하며’(권고 §1)는 ‘자문도 얻어’(CBCK), ‘자문을 통해야 하며’(CT), ‘자문 가운데’(정승원, 김성태외)로 번역되어 타종교 대표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인상을 준다.

88)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존 칼빈을 재해석하면서, 타종교 안에도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의 빛”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피조물에 역사하고 있다. 이로써 인간에게는 신(神)형상에 관한 약간의 특징이 아직 남아 있다. …신성에 대한 감각과 인상, 곧 종교의 씨가 사람 속에 있다”(차영배역, 『일반은총론』, 43).

(5) ‘다른 종교인의 관점을 고려하게 될 때’(권고 §3)가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이라’(CT, 문병호)로 심하게 의역되었다.

3.2. 이문서의 기여

첫째, 이 문서는 그리스도인이 타종교인과 다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서언§1-7), 실천적인 원칙(§1-12),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1-5)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선교와 전도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이 문서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분별력 있는 실천적인 권면이 많다. 특히 복음 증거의 방법에 있어서 인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타종교에 대해 연구하며 대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이 문서는 그리스도인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서로 연대할 것을 권고한다.

3.3. 이문서의 한계

첫째, 이 문서는 서구교회의 역사와 종교 간의 긴장과 갈등 배경에서 서양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국가로 이루어진 한국의 배경과 타종교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종교적 상황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도 다종교, 다문화 권으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민감한 갈등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둘째, 타종교와의 ‘대화’는 복음증거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요 4:3-42; 행 17:16-34), 교회 공동체가 타종교와 대화나 연대를 할 때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전제, 세계관, 전통, 그리고 신학적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공통점을 찾아 짧은 성명서를 작성하며 특히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복음주의적 입장이 다소 약화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한 복음주의 실천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문서는 기독교신앙과 신학의 근본 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다종교와 다문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한 하나의 실천 방안으로서 상당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WEA가 “WCC에 편승하여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간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 문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실천적 지침”이다.

이 문서를 준비하기 전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World Trade Center에 이슬람 극단 단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그 후 미국과 이라크 전쟁(2003.3.20-2011.11.15)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문서가 발표된 후 시리아 내전(2011-2024), ISIS의 인종 학살(2014-201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AR)의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전쟁(2012-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2023.10.7-현재) 등의 세계적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볼 때,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그 원리와 실천으로 제시한 이 문서가 역사적으로 시의 적절한 작품임을 알게 된다.

<주제어>

종교 간의 대화, 그리스도인의 증거,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혼합주의, 선교, 공동선, 세계복음주의 연맹, 세계교회협의회

<Keywords>

Interfaith Dialogue, Christian Witness, Religious Pluralism, inclusivism, syncretism, mission, common good, WEA, WCC

참고문헌

-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WEA와의 교류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의길』, 가리온, 2021.
- 김정우, “종교다원주의와 제1계명,” 『목회와 신학』 116, 두란노서원, 1993.2, 58-68.
- 문병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WCC에 편승하여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가감』, 솔로몬, 2021.
- 변창욱, “보수진영의 wcc비판과 종교다원주의 논쟁 IMC와 WCC 선교문서를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8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173-196.
- 손현정,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 전문” <크리스천투데이> (2011.6.2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47908>
- 송인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종교다원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 한국기독교학회, 2014, 79-104.
- 신정훈, “행동 권고 ‘다종교 사회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가톨릭신학』 20 (2012), 1-32.
- 양낙홍, “W.C.C.의 공식 문서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의 발전 과정,” 『개혁논총』 16, 개혁신학회, 2010, 129-159.
- 이국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회 공청회, 76-107.
- 정병준,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재조명: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장로교신학회』 8, 2011.03, 183-199.
- 정승원, “다종교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행을 위한 권고” 및 “로마가톨릭과 세계복음주의연맹의 국제 협의(2009-2016)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신학지남』 339, 2019, 49-80.
- 「다종교 세계에서 하는 그리스도인 증언: 행동 권고」 (2011.7.12.) <https://cbck.or.kr/Notice/13007544?gb=K1200>
-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광주. 전남협의회) https://hjd.net:8005/jesus/board_wIFV11/2275

<초록>

종교 간의 대화: 그 기여와 한계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천 권고안」

(2011)을 중심으로

김정우

(충신대학교 원로교수/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앞두고, 보수적인 한국 장로교(합동) 교단 내에서는 WEA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강한 비판 중 하나는 WEA의 신학적 입장이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로마 가톨릭과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일치하며, 포용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중요한 근거는 WEA가 로마 가톨릭 및 WCC와 함께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천 권고안」(2011) 문서에 공동 서명한 사실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번역을 원문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며, 학계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WEA, WCC, 그리고 가톨릭교회 간의 역사적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공통분모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금의 비판과는 달리, 이 문서는 WCC나 가톨릭 신학으로의 이동을 반영하기보다는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문서에 대한 주요 비판들을 평가한다. 첫째, 본 문서가 종교 다원주의, 포용주의 또는 혼합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WEA의 179년 역사 속에서 그러한 신학적 입장을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한

다. 둘째, 본 문서가 신학적 내용과 실천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이 문서는 선교적 사역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며, 정통신학의 핵심 사항들과 윤리적 실천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셋째, 번역상의 부정확성이 오해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공동선을 위한 종교 간 협력과 민감한 종교적 갈등 상황에서 제시된 선교 지침이 잘못 해석된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 문서의 기여에 대해 살펴보면, 복음 전도의 성경적 틀을 제공하며, 개인적 증언, 종교 간 대화, 인간 존엄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서구 중심적 관점이 작성이 되어 한국의 종교적·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교 간 대화는 기독교 증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초교파적 교류에서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문서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다종교 세계에서 복음주의적 증거를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한다. WEA가 WCC 및 가톨릭 신학적 포용주의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현대의 종교적 갈등 속에서 본 문서의 원칙들은 다원적 사회에서의 기독교적 참여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틀을 제공하며,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와 종교 간 대화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terreligious Dialogue: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Focusing on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Emeritus Prof. Kim Jung-woo
(Chongshin University/Director of IKTINOS)

As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prepares for its General Assembly in Seoul from October 27-31, 2025, concerns have been raised within the conservative Korean Presbyterian denomination (Hapdong) regarding WEA's theological identity and potential engagements. One of the most pointed criticisms is that WEA's theological stance aligns with ecumenical movements such a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thus advancing inclusivism, syncretism, and religious pluralism. A significant basis for this critique is WEA's co-signing of the document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alongside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WCC.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translations alongside the original tex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new translation while assessing scholarly evaluations of the document. The study finds that despite historical theological differences among WEA, WCC, and the Catholic Church, the document represents a minimal common denominator that they can collectively endorse. Contrary to critiques, the document clearly reflects evangelical theological perspectives rather than a shift towards

WCC or Catholic theological positions.

The study evaluates key criticisms of the document. First, it refutes claims that the document promotes religious pluralism, inclusivism, or syncretism, arguing that WEA's 179-year history contains no such theological stance. Second, it addresses the critique that the document exhibits a dichotomous separation between theological content and practice. Instead, it provides a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ssionary engagement, offering clear statements on the core aspects of orthodox theology while maintaining a balance with ethical practice. Third, it identifies translation inaccuracies that have led to misunderstandings, such as misinterpretations of interfaith cooperation for the common good and contextual ministry guidelines.

Regarding its contributions, the document offers a comprehensive biblical framework for mission, emphasizing personal witness, interfaith dialogu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religious freedom. However, it has limitations, particularly in its Western-centric perspective, which may not fully address the religious and cultural contexts of Korea. Additionally, while interfaith dialogue is essential for Christian witness, clearer guidelines are needed to ensure doctrinal integrity in ecumenical engagements.

In conclusion, the document does not deviate from core Christian theological principles but serves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evangelical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The claim that WEA aligns with WCC and Catholic theological inclusivism is unsubstantiated. Given contemporary religious tensions, the document's principles offer a timely and essential framework for Christian engagement in pluralistic societies and are expected to serve as a critical guideline for Korean churches in their global missions and interfaith dialogues.